

---



---

 ◆ 政府 施策 ◆
 

---



---

## 선도기술개발사업에 478억원 지원

### — 통산부, 12개 핵심과제 지원 —

통상산업부는 올해 모두 12개 선도기술개발사업 과제에 대해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등 47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통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01년까지 특정제품 또는 기술분야에서 세계일류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모두 18개의 선도기술개발사업을 추진중인데 통산부는 이중 주관사업 8개, 참여사업 4개 등 모두 12개 과제에 참여하고 있고 이들 사업에 올해 산업기술개발자금 430억원, 에너지관리 특별회계 48억원 등 총 478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통산부가 주관하는 선도기술개발사업은 첨단생산시스템, 차세대자동차, 차세대평판표시장치, 주문형반도체, 초소형정밀기계, 고속전철, 차세대원자로, 신에너지 등 8개인데 이중 고속전철기술개발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이다.

또 통산부 참여사업으로는 차세대반도체, 의료공학, 감성공학, 차세대초전도토크막 등 4개 사업이다.

한편 통산부는 선도기술개발사업과 관련, 92년부터 시작해 94년까지 1단계 개발을 완료한 차세대자동차는 2단계(95~97) 2차년도에 수행할 수행과제를 공고하고 이들 과제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9월16일까지 주관기관인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또 첨단생산시스템의 2단계(96~98) 과제와 올해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고속전철사업은 8월중에 개발과제를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 무역의 날 포상요령 공고

## - 노사분규빈발·不公正무역업체 감점 -

정부는 올해 무역의 날 유공자포상에서 수출의 양적 확대보다는 신시장개척, 對日수출, 수입대체 기술개발제품 수출 등 질적고도화에 기여한 부분에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또 수출기반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생산직근로자, 해외근무 경력자에 대한 포상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통산산업부는 오는 11월 30일 제33회 무역의 날을 맞이해 수출의 질적고도화를 적극 추진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공자 포상요령을 확정·공고했다.

이 요령에 따르면 올해 무역의 날 포상은 종전과 같이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출의 탑과 수출업체의 대표자 및 종업원, 기타 유공자에게 수여되는 정부포상으로 구분해 실시된다.

수출의 탑은 지난해와 같이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100만불과 500만불 등 2개의 백만불탑,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없이 적용되는 1천만불과 5천만불 등 천만불대 탑 2종, 그리고 1억불·5억불·10억불·50억불·100억불로 구분되는 억불대 탑 5종 등 모두 9종의 수출의 탑이 수여된다.

신청자격요건은 당해년도(95. 7. 1~96. 6. 30) 처음으로 해당 수출의 탑 단위 수출실적을 달성한 업체로 수출증가율이 당해기간 중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평균증가율인 19.3%를 상회하는 업체여야 한다.

다만 수출실적을 인정함에 있어 30대 계열기업군 소속업체간 거래에 의한 로컬수출인 경우 실적계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공급업체나 수출업체 중 한 업체의 실적만 인정하고 수탁가공수출은 외화가득액만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정부포상은 동기간 중 대기업은 1천만달러 이상, 중소기업은 100만달러 이상이고 수출증가율이 당해기간 중 우리나라 전체수출 평균증가율인 19.3%를 상회하는 수출업체의 대표자 및 종업원과 기타 유공자에게 수여하며 수출의 양적확대보다는 질적고도화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의 경우 신시장 개척, 대일지역수출, 수입대체 등 기술개발제품 수출 등에, 종업원은 생산직근로자, 여성근로자, 해외근무 경력자를 우대해 평가하되 노사분규 빈발업체, 불

공정 무역행위 등을 한 업체는 감점을 주기로 했다.

다만 적색거래처로 구분조치된 업체, 5년 이내 정부포상을 받은 자, 산업재해율이 높은 업체 및 그 임원, 기타 상훈법 또는 정부포상업무지침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포상에서 제외하는 등 포상에 대한 가격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포상신청은 한국무역협회 회원사업부 및 지부에서 8월 8일부터 23일까지 받는다.

## 中企 시설재 도입 허용 - 장기대출기한 자율화 -

올해안에 모든 중소기업에 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이 허용된다.

또한 현행 10년까지로 제한돼 있는 은행의 장기대출기한이 내년부터 자율화되며 올해안에 주식장외시장의 가격제한폭이 장내시장과 같이 6% 정률제로 변경된다.

재정경제원은 「금융분야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를 개최, 1백93개 검토과제중 기준치 25건을 포함한 82건을 개선키로 확정했다.

이번 규제완화의 주요내용을 보면 리스사와 지방투신사에 대해서는 영업권내에서의 지점설치를 올해중 자율화하고 투신사에 대한 통화채 인수의무제도도 내년에 폐지키로 했다.

또한 증권사에 표지어음 매매중개업무를 새로 허용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최고한도 5%를 올해안에 폐지, 업체자율 결정토록 했다.

신용금고에는 대출연계 수신상품과 환전업무를 허용하고 5년이상 장기상품에 변동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증권시장에서 10만원이상의 고가주에 대해 10주 이하의 단주매매를 허용하고 현행 10%인 종목별 신용한도의 증권사별 한도를 폐지키로 했다.

재경원은 리스사와 증권사에 업무와 관련한 컨설팅업무를 허용하고 은행들도 공공성과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의엔 자유롭게 정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투신사가 카드사 발행어음을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은행 현지법인의 직접설치에 대한 인가절차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이밖에 외채를 조기상환하기 위한 외화대출도 허용하고 기업이 일정한 재무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신용등급만 맞으면 외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 延支給수입기간 2001년이후 自由化

## — 財經院, OECD에 資本市場개방일정 答변서 제출 —

오는 98년부터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기자금 조달의무가 폐지된다. 또 내년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수입을 위해 해외 모기업 또는 관계회사로부터 만기 5년 이상의 차관형태 차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수출선수금 영수한도가 단계적으로 확대, 99년까지 폐지되며 2001년부터는 연지급수입기간에 대한 제한도 사실상 없어진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개방일정에 관한 답변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본이동 및 국제투자위원회(CMIT / CIME)에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이 답변서에서 산업공동화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10월 제정한 해외투자의 자기자금 조달의무를 오는 98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현재 전년도 수출실적의 10% 범위 안에서 대기업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는 연내 15%로 확대하고 97년 20%, 98~99년 30%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99년에 폐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120일, 대기업 90일로 제한돼 있는 연지급 수입기간도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대기업은 99년부터 180일로 확대되고 2001년부터는 실질적으로 180일 이상이 필요할 경우 180일 초과 연지급수입을 허용키로 해 사실상 폐지된다.

재경원은 또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수입을 목적으로 해외 모기업 또는 관계회사로부터 5년 이상의 차관형태로 일정한도 내에서 차입하는 것을 외국인 직접투자로 간주해 내년부터 허용하고 99년말까지는 용도제한을 완화해 운전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내외금리가 2%포인트 이내로 축소되거나 거시경제 안정이 지속될 경우 완전자유화하기로 했다.

98~99년 이후에나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현금차관도 내년부터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 제1종 사업중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도입을 허용키로 했다.

해외증권 발행 역시 내년중 SOC 민자유치 제1종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국내공사비 조달용도의 경우 허용하고 발행자 요건도 99년 발행한도 폐지와 함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변경, 한국 신인도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1인당 종목별 주식투자 한도가 현행 4%에서 오는 2천년에 10%로 확대되고  
채권시장 개방은 기존 개방계획을 유지하되 오는 98년 중 대기업 무보증 전환사채에 대한 직접투  
자를 일정 한도 내에서 허용할 방침이다.

## '96년도 유망선진 기술기업 지정 - 전기·전자 업체등 총 159개 업체 -

중소기업청은 유망선진 기술기업 육성방안에 의거 '96년도 유망선진기술기업을 다음과 같이 지  
정·공고 했다.

### ■ '96 유망선진 기술기업 명단(전기분야)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전 화 번 호)	발굴기관
화 덕 산 업(주)	김 영 덕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109-3 (0357)541-2861	중소기업 진흥공단
선 일 전 기	임 병 일	인천시 서구 가좌3동 수출5공단 542-5 (032)583-0741~5	생산기술 연 구 원
(주) 화 선	김 인 철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81-10 시화공단 3다 311 (0345)499-3611	"
삼 원 전 기(주)	설 호 철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04-10 동남오피스텔 708호 (02)839-4252	"
(주) 세 운	지 상 철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489-11 (042)635-3344	"
한 발 에 너 지	박 인 성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587-1 (042)626-6991~2, (042)672-0543	"
영 성 산 업(주)	김 기 진	충북 청원군 가덕면 금거리 145 (0431)54-2010	"
(주) 케 이 맥	유 흥 렬	서울시 도봉구 창동 674-83 (02)955-0140	"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전 화 번 호)	발굴기관
케이티전기(주)	구자영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1509-13 (051)265-0255	지역협동기술 지원센터(부산)
효성트랜스공업	장유현	경기도 파주시 월릉면 위전 2리 613-1 (0348)945-1213	지역협동기술 지원센터(인천)
세광산업	안창호	경기도 파주시 월릉면 덕은리 460 (0348)945-4204	"
아세아전기공업(주)	김봉현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277-52 (02)469-3454	"
(주)광원전자	고광수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398-3 (0348)52-7983	"
(주)썬코리아전자	신규섭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381-4 (0343)59-9561	지역협동기술 지원센터(경기)
유아전자(주)	박현승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매류리 216-2 (0337)84-9561	"
신보산업전자(주)	강봉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7동 203-14 (0343)68-2448, 9551	"
유양산전(주)	임근영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38-2 (0343)22-0021	"
삼흥중전기공업(주)	조형기	경기도 이천군 신둔면 수광리 324-4 (0336)32-7144	"
(주)홍우산업공사	이기종	강원도 원주시 태장2동 1720-46 (0371)47-5574	지역협동기술 지원센터(강원)
조양전기공업(주)	김기수	충북 음성군 원남면 마송리 127-3 (0446)72-9251	지역협동기술 지원센터(충북)